

# “영화와 비슷한 사건 실제 일어나 마음 아파”

### ‘비상선언’ 한재림 감독 “10년 전부터 준비한 재난 영화” “작은 성실함이 모인다면 재난 극복해 낼 거라는 희망 담아”

“전 인류의 재난이었는데 너무 현실에 맞닿아 있는 이야기가 돼서 개인적으로 억울합니다. 다음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검사들을 그린 ‘더 킹’이 2017년 초 국정농단·탄핵 국면에 개봉하자 한재림 감독의 ‘예지력’이 발휘된 영화라는 농담 섞인 평가가 나왔다. 한 감독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영화 속 스마 장면을 삭제해야 했다.

신작 ‘비상선언’ 개봉일인 3일 화상으로 만난 한 감독은 “장르영화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비상선언’에서 항공기 내 테러 수단으로 쓰인 바이러스 전파와 이를 대하는 인물들 태도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풍경과 겹친다. 한 감독은 10년 전부터 준비한 영화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비상선언’은 코로나19 공포가 극에 달한 2020년 5~10월 촬영했다. 한 감독은 “영화와 비슷한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팠다”며 “하지만 영화에서 그리려고 한 것처럼 재난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감독은 ‘비상선언’을 테러영화 아닌 재난영

화로 규정했다. 테러의 구체적 양상과 해결방식 대신 인물들의 대처에 중점을 뒀다는 얘기다. 기내에서 바이러스가 퍼지고 승객들이 죽어가는 모습보다, 희생을 최소화하고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려는 인물들 노력을 부각했다.

그래서 임사완이 맡은 진석은 테러리스트라기 보다는 재난을 상징하는 인물로 쓰인다. 한 감독은 “본인을 범죄자라고 생각하거나 힘주려 하지 말고 일상처럼 연기하면 여러 상황(캐릭터) 만들어 줄 거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 감독은 “재난은 쓰나미처럼 이유 없이 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여파는 남는다”며 “재난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집중했



한재림 감독



영화 ‘비상선언’ 스틸컷.

다”고 말했다. “재난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증오, 이기심 같은 게 제가 생각하는 재난입니다. 재난을 이겨내는 건 모든 사람들의 인간성과 용기, 인간감 가질 수 있는 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실함이 모인다면 재난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 감독은 ‘인간’, ‘사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썼다. 베테랑 형사 인호(송강호), 국토부 장관 속희(전도연), 딸과 함께 비행기에 탄 재혁(이병

현) 등 대부분 캐릭터에 직업에 따른 역할 대신 인간으로서 면모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장르적으로 과장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직업 아닌 사람이 앞서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감독은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며 “영화를 보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힐링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비상선언’, ‘한산’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

‘비상선언’이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했다. 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비상선언’은 개봉일인 전날 관객 33만 6000여 명(매출액 점유율 46.8%)을 모으며 ‘한산’ (23만5천여 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0일 개봉한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은 전날 하루 1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 그쳐 6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봉 첫날 관객수를 비교해보면 올여름 한국영화 대작 네 편 중 세 번째 주자인 ‘비상선언’은 ‘한산’ (38만6000여 명)보다는 낮지만 ‘외계+인’ 1부 (15만8000여 명)보다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8시 실시간 예매율에서는 ‘비상선언’이 33.7% (18만2000여 장)로 ‘한산’ (32.5%)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외계+인’은 1.7% (9000 명)로 8위다. /연합뉴스

## 김다미·박해수 ‘대홍수’ 주연



김다미(왼쪽), 박해수.

김다미와 박해수가 재난영화 ‘대홍수’ (가제)에서 주연을 맡는다고 넷플릭스가 2일 밝혔다.

영화는 대홍수가 덮친 지구 마지막 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건 이들이 물에 잠겨가는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사투를 그린 SF 재난 블록버스터다.

김다미는 인공지능 개발 연구원이자 거대한 해일에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안나를 연기한다. 박해수는 안나를 구조하려는 인력보안팀 희조 역이다. ‘더 테러 라이브’ (2013)와 ‘PMC: 더 벙커’ (2018)를 연출한 김병우 감독이 각본을 쓰고 메가폰을 잡는다. /연합뉴스

## 애니 ‘아멘 어 맨’, 캐나다 판타지아 영화제 수상



단편부문 금상을 수상한 김경배 감독의 ‘아멘 어 맨’

김경배 감독의 ‘아멘 어 맨’ 등 한국 애니메이션 3편이 ‘제26회 캐나다 판타지아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 따르면 ‘아멘 어 맨’은 이 영화제가 애니메이션에 수여하는 ‘곤 사토시 어워드’ 단편 부문 금상을, 김장수 감독의 ‘사라지는 것들’은 은상, 박성배 감독의 ‘유 캔 플라이!’는 특별연금상을 받았다.

지난 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캐나다 판타지아 영화제’는 북미 최대 규모 장르 영화제다.

콘진원은 영화제 기간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주캐나다 한국문화원과 함께 ‘한국 애니메이션 특별전’을 열어 장편 애니메이션 ‘태일이’를 비롯해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 44편을 소개했다.

특별전에는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영화제 후보에 오른 ‘각질’의 문수진 감독과 ‘태일이’의 홍준표 감독, ‘굿바이, 드라마’의 민지혜 감독, ‘아멘 어 맨’의 김경배 감독이 참여해 관객들과 만났다.

김상현 콘진원 방송영상본부장은 “특별전을 통해 해외로 뻗어나가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tvN, 김순옥 작가와 손잡고 ‘레이디’ 촬영... 내년 방송



tvN ‘레이디’ 주인공 이지아(왼쪽), 이상윤.

### 이지아·이상윤 주연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 ‘펜트하우스’ 등을 집필한 김순옥 작가가 tvN과 손잡고 신작 ‘레이디’를 선보인다.

tvN은 김순옥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는 ‘레이디’에 배우 이지아, 이상윤, 장희진, 박기웅, 봉태규 등을 캐스팅하고 촬영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레이디’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영부인 자리에 올라야 하는 한 여자의 치열한 생존 이야기를 그린다.

이지아는 과거 기억을 잃은 대선 후보 부인 흥

태라 역을, 이상윤은 대선에 출마하는 표재현 역을 맡아 부부호흡을 맞춘다. 장희진은 시대의 아이콘으로 손꼽히며 사랑받는 YBC 메인 앵커 고해수로, 박기웅은 IT 기업 ‘해치’의 경영대표이자 고해수의 남편 장도진으로 분한다. 봉태규는 ‘해치’의 괴짜 연구소장 구성찬을 연기한다.

SBS 드라마 ‘윈더우먼’, ‘굿캐스팅’ 등의 최영훈 감독이 연출을, ‘언니는 살아있다’ (2017)부터 김순옥 작가와 모든 작품을 함께 작업해온 현진민 작가가 집필을 맡는다.

김 작가는 직접 집필하지는 않고 작품 방향을 잡고 집필 가이드를 해주는 크리에이터 역할을 한다. 내년 중 방송 예정.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b>(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b></p> <p>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p> <p>☎ 062)223-0177, 010-3642-7320</p>	<p><b>(주)대신수산유통</b></p> <p>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p> <p>☎ 062)233-0067, 010-3634-7264</p>	<p><b>(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b></p> <p>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p> <p>☎ 062)573-3112, 010-8221-3119</p>	<p><b>문화결혼상담소</b></p>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p> <p>☎ 062)529-0315, 010-3606-5632</p>		
<p><b>꽃게랑 약선반찬 전집</b></p> <p>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김,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p> <p>☎ 010-2315-2058</p>	<p><b>금남로 사주 카페</b></p> <p>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p> <p>☎ 010-7495-1577</p>	<p><b>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b></p> <p>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햇도그1개 1000원 치즈햇도그1개 1500원, 참살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p> <p>☎ 061)337-7987, 010-7732-6955</p>	<p><b>면쟁이</b></p> <p>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p> <p>☎ 010-5459-9664</p>	<p><b>법무사 황영수 사무소</b></p> <p>광주시 동구 자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p> <p>☎ 062)226-9966, 010-3002-0816</p>	<p><b>석당화랑</b></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b>동양철학원</b></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b>필스제화</b></p>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글라리아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굵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p> <p>☎ 010-4755-9294</p>	<p><b>인철(仁喆)익스프레스</b></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p> <p>☎ 062)572-2323, 010-9509-4422</p>	<p><b>무크 광주세정점</b></p> <p>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예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p> <p>☎ 062)370-9151</p>	<p><b>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b></p> <p>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p> <p>☎ 062-225-4445, 010-3603-3064</p>	<p><b>초대화랑</b></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b>고전방</b></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b>남도철학원</b></p> <p>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p> <p>☎ 062)522-9653, 010-8645-2254</p>	<p><b>송가네 반찬</b></p> <p>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p> <p>☎ 062)672-9809, 062)672-6376</p>	<p><b>다홍치마 한정식 전문</b></p> <p>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p> <p>☎ 062)233-9952, 010-4469-0360</p>	<p><b>한국기원</b></p> <p>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p> <p>☎ 010-8610-8373</p>	<p><b>박당화랑</b></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한승 ☎ 062)222-6866</p>